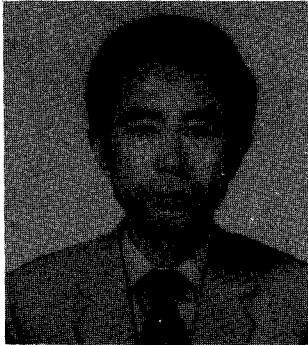


봄철 육성관리 포인트



강 천 득

기온이 점점 상승하지만 때로는 서고동저형(西高東低型) 기압배치로 인한 꽃샘추위와 비바람으로 고르지 못한 일기를 보이는 봄철에 병아리를 육성할 경우,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소기의 육성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.

이에 필자는 봄철 육성시 유의할 사항중 요점을 정리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해를 돕도록 기술코자 한다.

● 입추계획 및 예비

먼저 입추계획은 다음 사항에 기초하여 좀여유있게 세운다.

(1) 노계균 대체 및 수용계획(청소, 소독, 공실기간, 수용수수-밀도)

(2) 육성비 예산

(3) 다산란기, 출하기의 계산물시세 예측

(4) 입식 품종과 부화장에 대한 정보(계종능력 특성, 공신력, 예약상태 등)

(5) 육성방법-평사 배터리(케이지)시스템 위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.

1) 기구 비품준비

육추기, 난로, 연통, 연료, 급이기, 급수기, 온습도계, 칩가드, 양은 바케츠(급수, 습도보급용) 물통, 조리, 급이삽, 비닐(보온덮개), 위생복, 위생화, 사료공대(内皮) 등

2) 깃자리 준비

3) 사료 약품준비

사료 및 약품은 입추 2~5일 전에 준비한다. (도로 상태가 나쁠 때도 고려)

● 육추실 시설 및 점검

(1) 소독후 2주 이상 공실(空室)기간을 둔 계사에 입추 3~7일전까지 시설완료→재소독

(2) 입추전 가동시험-실온, 육추기 온도, 안전도(화재위험 가스누출) 체크

(3) 조절가능한 최소한의 환기구

(4) 위생실과 소독판

(5) 깃자리 깔기-봄철 10cm 내외두께(평당 2~3가마)

(6) 쥐구멍 막기 및 살서제 투약-입추 1주전 완료

※ 연탄난로 시설 사용시의 유의사항

① 샷갓(육추기)은 자연광선이 잘 들어오지 않는 쪽에 시설한다(햇볕이 비치는 편으로 밀집, 붐벼서 압사 또는 발육 불균일의 원인이 안되도록)

② 연통은 약간하향으로(5°) 경사지게, 외부로 뽑은후 수직 3자 이상이 되도록 세우고 T자로 부착한다(수직 마구리 밑에 못구멍을 내어 유독액이 유출되게)

③ 난로 연통의 연결부위를 단단히 한다.

④ 난로의 불문은 잘 열리지 않도록 딱딱하게 한다.

⑤ 화상예방을 위해 난로 밑부분 공간을 잘 흡으로 채운다.

⑥ 난로뚜껑을 안전하게 여닫도록 뚜껑, 고리 등 안전장치를 한다.

⑦ 연통배출구는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편으로 내어 역풍을 방지한다.

⑧ 연탄운반 및 불을 갈때는 반드시 구리스통 같은 철제용기를 사용한다.

※ 석유난로 사용시의 유의사항

① 카브레터(기화기)를 철저히 체크한다.

② 송풍팬 기름치기 및 작동을 체크한다.

③ 연료통은 난로와 5m 이상 거리를 둔다.

④ 정전에 대비한 비상벨을 설치해 둔다.

⑤ 과열에 대비하여 연통을 벽과 기둥에서 떠우거나 석면, 스텔트 조각을 끼운다.

⑥ 난로 바로 위쪽은 천정과 좀 띄워 함석 등으로 방화판을 시설한다.

⑦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(연소에 따른 실내 산소부족 예방)

※ 가스부루더 사용시의 유의사항

① 연결부위의 누출여부를 항상 체크한다(접착제를 단단히 바르고 조인다).

② 자동점화에 이상이 없도록 파이롯트 램프

에델판 온도조절을 한다(래바 점검)

③ 파이프 내의 물과 습기를 배출시킨다.

④ 호스를 부루더 위에 늘어뜨리지 말고 수직 또는 수평이 되게 한다.

⑤ 가스탱크는 그늘진 실외에 넘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윗부분은 뚜껑을 씌워 비바람으로부터 피해야 한다.

⑥ 석유난로보다 환기를 자주 시켜준다.

● 입식직전 준비와 유추관리

1) 사료준비

급수기가 얇고 충분히 고루 배치된 상태일 때 는 가루모이 그대로 급여해도 무관하나, 수송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산란초기의 소란에서 부화된 병아리의 탈수증이 우려될 때 또는 케이지시스템에서는 항생제 영양제를 희석한 물로 사료를 버물여 손아귀에 쥐었을 때 약간의 물기가 스며나올 정도로 하여 1~2시간 불리는 것이 좋다.

2) 바닥의 종이 깔기 및 매일 교체

위생상 사료공대 내피만 사용하여 그 위에 2~3일 급이할 때 평사는 샷갓육추기와 칩가드(병아리용 병풍) 사이에만 깔고 4~6 구역은 △형으로 접어 사이를 다소 겹쳐 깔며 배터리는 2/3부분만 깎는다.

3) 영양제와 항생제의 투여량

① 항생제는 제품별 사용지침에 따르되 250ppm(100만분의 250)까지 단기사용이 가능하다.

② 설탕(또는 포도당분말)은 장거리 수송상태, 초산계에서 생산된 병아리 등의 탈수증 예방과 원기를 돋우어주는 역할을 하는바 일반적으로는 물 1ℓ당 1~2g을, 상태 우려시는 80~100g을 희석하여 물을 잘 먹도록 조장한다(12~15시간 급여)

4) 급 수

병아리 도착 3~5시간 전에 급수하여 물온도가 실온 가까이 오르게 하고 평사는 샷가 가장 자리 약간 안쪽으로 몇개의 급수기를 넣어 우둔한 병아리들의 음수에 도움을 주고 샷가내의 과건조(過乾燥)를 완화시키도록 하며, 급수면적은 원형급수기의 75~100수당 1개 기준이다.

한편 배터리는 칸당 보조급수기를 사용한다(반쪽 자른 PVC 새난좌, 좀 오목한 플라스틱 접시 등)

5) 급 이

급수 1~2시간후 종이 위에 가볍게 1일 6~8회 뿌려주되 입식일 1일 수당 적정급이량은 아침입추 기준으로 육용계는 4g, 산란계는 3g 정도면 된다.

6) 온 도

입추당일은 육추기내(병아리 등높이) 온도는 32~34℃(육용계는 32~33℃ 범위), 실내온도는 28℃(전체급은시 33~35℃) 기준으로 급온하고, 2일째는 기내온도를 1℃ 정도 낮추어 주며 이후부터는 매주 3~4℃씩, 실내온도는 1.5℃씩 내려준다. 전체급은시도 매주 3℃씩 내려 실온 및 기내온도를 20℃ 수준으로 유지 시킴이 원칙이나 유창계사의 육추환경 여건상 기준을 지키기란 실제로는 어려우므로 가능한 급온(給溫)과 환기조절로 기준을 크게 벗어나

지 않도록 조절관리함이 바람직하다.

7) 습 도

입추 수일간은 실내 상대습도가 75%수준(건습구 온도차 3~4℃)을 유지하도록 난로위 물바케츠 올려놓기, 바닥 통로의 물뿌림, 벽면 실내분무방법 등을 강구한다.

※ 탈수증 예방

봄철 햇빛이 낡은 종란에서 부화된 병아리의 장거리 수송으로 인해 배부시간 지연시(외모, 주익우, 소낭축진으로 감지)는 적온과 아울러 충분한 습도를 공급해 주며 설탕과 비타민제를 투여한다.

● 봄병아리의 점등관리

광선은 성장 및 성성숙과 산란에 매우 큰 영향을 주므로 합리적인 점등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양축가는 없겠지만 실제 계절과여건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생산성을 높이면서 전력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의아할 때가 많을 것이므로, 이 장에서는 봄철의 육성기 점등방법을 요약 정리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.

1) 산란실용계 및 종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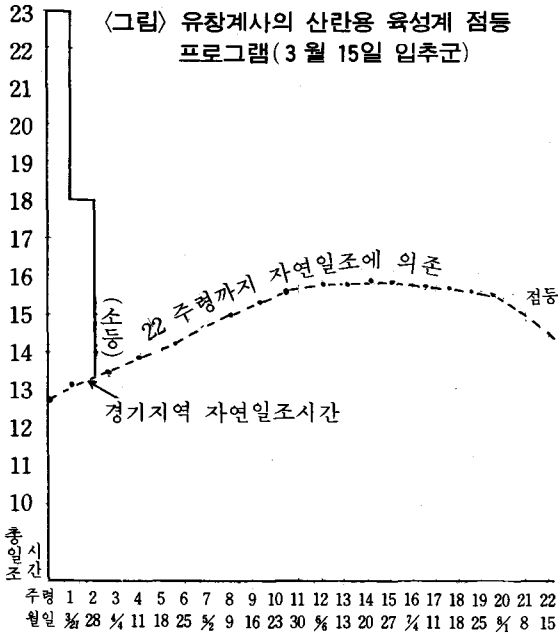
① 조도(照度)

아래 표를 참고하여 관리토록 한다.

〈표〉 육성기의 조도

주령	표준W수	적정 Lux	최소-최대 Lux	적 요
0~2주령말	4W/m ² (13W/평)	20Lux	10~50Lux	• 입식후 2~3일간은 60W전구(코드조정 가능시는 1.5m 정도로 낮게)를 사용하여 활동영역을 20Lux이상 밝게 균등조명
3~20(22)	2W/m ² (7W/평)	5내외	2~5	• 거의 자연일조에 의존

$$\text{※ Lux} = \frac{0.9 \times \text{W수}}{\text{광과 전구간의 거리 m}^2}$$



② 점등시간(유창계사)

윗그림을 참고하여 1주령말까지는 23시간, 2주령말까지는 18시간 점등후 폐등하여 육성말기까지 자연일조에 의존(농장 전기용량 부족시 0~3일 : 23시간 4~7일 : 18시간, 이후 소등) 하고, 21~23주령 초부터 총일조시간이 13시간 이상 되게 부족한 자연일조시간을 인공점등으로 보충하여 2주당 30분씩 증가시켜 15~16시간대에서 고정시킨다.

2) 브로일러

1주간은 산란계 조도에 준하고 이후는 0.1축광(1.2Lux)-5W 백열전구를 2m 높이 2m 간격으로 배치-정도의 저광도로 총일조 시간을 16시간 이상으로 유지시키고, 계군관찰에 다소 불편이 있지만 닭을 조용한 상태로 운동을 좀 억제시키면서도 사료와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.

● 부리자르기

햇살이 점차 밝아지고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

유창계사, 특히 비닐육성사는 과도한 광도와 낮의 실온상승이 우려된다.

이러한 환경조건에 더하여 적절한 급은 환기 조절과 실내 밝기가 잘 조정되지 않거나 급이기·급수기의 부족, 밀사상태 등 병아리의 신경을 자극하고 경쟁과 투쟁을 일으키는 요인을 주게 되면 꼬리쪼기, 날개쪼기 같은 악벽(惡癖 Cannibalism)이 일찍부터 발생하여 전계군에 전파되고 습관화된다. 그리고 이런 습성은 초산기에 황문쪼기로 발전하여 탈항(脫肛)증가의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생존경쟁이나 신경질적인 서열투쟁이 심화되지 않도록 여유있고 안락한 육성환경을 만들어주는 한편 부리자르기(Debeaking)로 악벽을 예방해야 할 것인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토록 한다.

(1) 적절한 수용밀도 및 급이 급수면적 제공

(2) 과급온(過給溫) 금지

(3) 계사의 밝기조절

(4) 3~8일령에 1차 디비킹(1일령은 약 2mm, 유추기는 부리끝에서부터 콧구멍까지의1/3을 잘라 1초 정도 지저 1/2 절단효과를 냄)을 하고 70일령 전후에 디비킹을 교정시켜준다.

(5) 디비킹은 반드시 경험축적이 된 기능자에 의해 신중히 실시되어야 한다.

(6) 초산기에 진탈항(眞脫肛-생리적 탈항)이 유발되지 않도록 체중조절로 과비역제

(7) 무리한 점등증가 금지

(8) 양질의 사료를 급여하고 주기적으로 미량영양소를 보충해준다.

● 그 밖의 관리사항

(1) 평사, 깃자리, 건조유지 및 칩가드를 제때에 신속히 확장시키거나 철거한다.

(2) 주기적인 살충·소독과 아울러 환경을 청결히 하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한다.

(3) 제한급이의 강도를 다소 높여 증가되는 일조시간에 의한 빠른 성성숙을 억제시킨다.

(4) 격리육추는 완벽하게 한다. *